**마2308 Note**

**◆도우미 : 랍비**

◇유대교에서 율법학자 또는 존경받는 선생을 일컫는 말.

명칭의 유래는 '나의 스승님', '나의 주인님'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라고 하며,

유대교에서 보통 종교학자, 혹은 율법학자를 부르는 존칭으로 사용된다.

용어 자체는 1세기 때부터 보편화되었다. 즉, 영어의 "마스터/티쳐" 또는 한국어의

"선생님"과 비슷한 위치의 단어이다.

실제로 랍비를 선생님이라고 번역하는 사례도 여럿 보이는 편.

보통 랍비가 유대교의 성직자라 생각하지만 아니다.

유대교의 성직자라고 볼 수 있는 제사장은 이스라엘 12지파중 하나인 "레위"지파의

사람만이 될 수 있는데, 이들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저 옛날 정복되고

솔로몬의 성전이 파괴되어 성전을 지키며 성전 의식들을 거행하는 제사장의 존재의

미가 희미해짐에 따라 그 세력이 크게 줄어들었고,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온다.

즉, 랍비라는 개념은 성직자와는 크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

◇랍비란 유대교에 정통한 현명한 어르신이라 이해하면 된다.

예수도 복음서에서 존중받는 의미로 랍비라고 불렸다.

유대교의 모든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쳐야 하는데, 서기 70년경에 로마가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티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면서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게 되었다.

결국 이 일로 기존의 성전 중심의 유대교는 엄청난 타격을 입게 되고 큰 변화가 불

가피해졌는데...

먼저 성전이 파괴되면서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진 제사장들과 성직자단이 저절로 해체

되었고,

자연스레 사두가이파와 로마에 대항한 젤로트당 등의 세력은 몰락했다.

바리사이파는 유대교의 명실상부한 주류가 되었고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상태에서

토라 공부가 제사를 대신한다고 명망 있는 랍비가 해설한 이래,

랍비와 토라 공부장소(예쉬바), 토라 낭독, 유대 회당(시나고그)을 중심으로 한

랍비 유대교가 수립되었고, 현대까지 발전해 이어지고 있다.

당연히 일개 학자들이던 랍비들의 권위도 성직자들의 지위를 흡수하고

유대인들의 종교적, 사회적 지도자의 위치로 부상해 엄청나게 신장되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방식의 유대교는 이전의 성전 의식 중심의 정통

(orthodox) 유대교와 구분하여

'랍비 유대교'라고 불리게 된다.

즉, 랍비 유대교는 나라를 빼앗기며 유대교의 중심점이 되었던 종교 의식들을 하기

어렵게 되자 발달하게 된 대체재인 셈.

토라 공부와 시나고그(회당) 중심의 랍비 유대교가 확립된 후에도

하시딤과 하레디 등의 극정통파, 개혁파, 진보파, 보수파, 신정통파, 카라이트(토라

의 권위만을 인정하는 소수종파) 등 여러 분파로 나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유태인들의 탈무드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람들도 이들이라서인지 지혜로운 역할로

자주 등장한다. 아버지와 동급 혹은 이상으로 취급받는다.